

마음과 생각이 안녕하십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

1. 무엇을 지키며 살 것인가: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

현대인들은 참으로 많은 것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재산을 지키고, 명예를 지키고, 건강을 지키며, 때로는 알팍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설교는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시작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지키며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 서서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생명이나 육신의 건강을 가장 먼저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살아있어야만 다른 모든 것을 도모할 수 있다는 논리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육적인 생명이나 물질적 가치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잠언 4장 23절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선언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곧 생명을 지키는 일이며, 삶의 모든 기초가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영적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2. 마음과 생각의 역학: 마당과 춤의 비유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기쁨, 슬픔, 두려움, 허탈함 같은 수많은 감정들은 외부의 환경이 빚어내는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결과물입니다. 설교자는 이 마음과 생각의 관계를 '마당'과 그 마당 위에서 '춤추는 사람'으로 탁월하게 비유합니다. 마음이라는 넓은 마당이 펼쳐져 있고, 그 위에서 움직이고 춤을 추는 모든 활동이 곧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마당이 평탄하고 안정되어 있어야 그 위에서 춤을 추는 자원들도 자유롭고 아름다운 동작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마당 자체가 흔들리거나 가시덤불로 덮여 있다면, 아무리 좋은 생각이 춤을 추려 해도 스텝이 꼬이고 상처를 입게 됩니다. 어제 내게 기쁜 일이 있었다면 나의 마음과 생각의 마당이 기쁨을 수용할 상태였던 것이고, 작은 일에도 크게 분노하고 좌절했다면 마음의 마당이 이미 메말라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삶 전체는 결국 이 마음의 마당을 어떻게 가꾸고, 그 안에서 어떤 생각의 춤을 추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3. 궁극적 롤모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누구의 마음을 닮아가야 할까요? 누군가를 존경하고 닮고 싶어 한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그의 외모나 성공의 결과물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 즉 '마음과 생각'을 닮고 싶어 한다는 뜻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유일하고 완벽한 롤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명확히 지시합니다.

신앙의 성숙도는 우리가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느냐에 비례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할수록 우리의 영혼은 행복해지고, 반대로 그분과 멀어질수록 신앙은 생명력을 잃고 불행의 늪으로 빠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타인을 향한 '관용'과 '환대'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품을 수 없는 사람조차 관용할 수 있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고,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는 결국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밖으로 흘러넘치는 과정입니다.

4. 마음을 지키는 방패: 하나님의 평강

가장 소중한 이 마음과 생각을 우리는 무엇으로,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이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마음을 지켜내는 방패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거나,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거나, 질병이 낫거나, 사업이 번창하는 것들도 분명 우리에게 안도감과 행복을 줍니다. 하지만 세상이 주는 이러한 조건부 평안은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 하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두르고 있으면, 외부에서 어떤 환난과 폭풍이 몰아쳐도 결코 우리 내면의 마당을 침범하거나 어지럽히지 못합니다. 이 평강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견고한 영적 요새가 되어 우리를 지켜줍니다.

5. 평강을 누리는 통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와 간구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마음에 모셔 들이는 구체적인 방법은 바로 '기도와 간구'입니다. 그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실하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앞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영적 원리는 그 기도의 바탕에 반드시 '감사'가 깔려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